



연구논문/작품 제안서

2020 년도 제 1 학기

논문/작품	○논문() ○작품(○) ※ 해당란에 체크
제목	기계 학습을 통한 시조의 규칙성 연구 및 활용
GitHub URL	https://github.com/chlee440hz/sijo
팀원명단	이 창 희 (인) (학번: 2012311402) 정 진 일 (인) (학번: 2012310232)

2020 년 3 월 16 일

지도교수 : 이 은 석 서명_____

한국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는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는 민족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점점 대중과 문단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비슷한 이웃 국가의 정형시인 하이쿠가 여전히 활발히 창작되고 해외에서도 즐겨 짓는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발전한 것과 비교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시조의 재부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활발한 대중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창작 시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조는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그 규칙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어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는 기계 학습을 통해 고전시조와 현대시조의 규칙성을 연구, 기존의 시조 이론들과 비교하고 이를 활용해 창작 시조의 정격 부합 여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조 창작의 대중화에 기여하려 한다.

1. 과제의 필요성

한국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노래라는 뜻의 시절가조(時節歌調)의 줄임말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향간에 대중적으로 불리던 일종의 유행가를 옮겨 적은 것이 그 시작이다. 간혹 고루한 것, 특수한 계층만 즐기던 것으로 오해받는 것과는 달리 시조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지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 시대 민중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민족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시조는 시대의 노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대중과 문단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명 문예지들은 시조 지면을 줄여나가거나 시 지면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신예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신춘문예나 신인문학상에서도 따로 시조 부분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가까운 일본에서는 하이쿠나 센류가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자리 잡아 해외로도 수출되면서 영어 하이쿠 같은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기도 하고, 중국 역시 여전히 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중국관영방송에서 제작한 일반인을 대상의 한시 경연 프로그램 “중국시사대회”가 4 시즌째 흥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시조의 쇠퇴를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훈련받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시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하이쿠는 본래 주로 귀족들이 즐겨 짓던 31자(5/7/5/7/7)의 정형시 와카에서 뒷부분을 빼 17자(5/7/5)만을 남기고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할 경우 하이쿠, 그러한 제약이 없을 경우 센류로 간소화 한 것이다. 하이쿠의 간단한 규칙과 짧은 길이는 과거 평민들 역시 즐기기에 좋았음은 물론이고 현재에 와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하여 일본 대중뿐 아니라 일본어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외국인들도 쉽게 하이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에 반해 시조는 3장 6구 12음보 45자(3/4/3/4/3/4/3/4/3/5/4/3)로 전통적인 정형

시의 구조는 잘 유지하고 있지만, 다소 길고 그 규칙 또한 한 번에 파악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시조를 써보고 싶어도 그 시조가 잘 쓰였는지의 여부는 고사하고 시조의 규칙을 잘 지켰는지조차 쉽게 알기 어렵다. 물론 대중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하이쿠처럼 시조의 형태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조의 재부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좀 더 쉽게 시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나 환경이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선행연구 및 기술현황

시조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규칙을 가지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인위적인 정형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리던 노래들을 기록해 정리한 것이 그 시작이기 때문이다. 시조의 음율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학자들과 시인들을 통해 계속되어 왔지만 연구의 편의를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병기, 조윤제 등의 음수율에 의한 평시조 모형과 이후 수정된 음보율에 의한 기준형을 참고로 한다. 연구에 사용하는 고전 시가 데이터는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고전문학 전집을 참고한다.

3. 작품/논문 전체 진행계획 및 구성

본 작품에서는 기계 학습을 통해 고전시조와 현대시조의 규칙성을 연구하고 기존의 시조 이론들과 비교하고 이를 활용해 일반 대중들의 창작 시조의 정격 부합 여부를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먼저 비교를 위해 기존의 음수율과 음보율에 따른 정격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필요에 따라 오토마타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그 후 머신러닝을 활용해 선별된 고전시조와 현대시조 데이터의 규칙성을 학습시키고 앞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 테스트한다. 테스트는 정격 시조와 파격 시조, 시조가 아닌 무작위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판별 결과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테스트 결과 더 우수한 모델을 채택하거나 두 프로그램을 절충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4. 기대효과 및 개선방향

테스트 결과를 통해 시조의 규칙에 대한 기존 연구와 통설이 실제 시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성된 프로그램을 상용화하여 누구나 쉽게 시조를 창작하고 그 결과물이 시조의 규칙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

5. 1 팀원간의 역할분담

이창희 - 시조 데이터의 수집과 전처리, 테스트 및 결과 분석

정진일 - 기존 모델을 활용한 정격 판별 프로그램 개발, 시조 데이터의 기계 학습

5. 2 비용 분석

추후 사용화를 위한 웹사이트 호스팅 비용 혹은 모바일 스토어의 등록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6. 참고문헌 (1페이지 내외)

[1] 김제현 (1999), 현대시조 작법, 새문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1993), 한국고전문학전집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460>)